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감쪽같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아니하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감쪽같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꾸미거나 고친 것이 전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지 아니하다.

감쪽같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감쪽같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감쪽같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감쏙같- 문헌 수록 표기	—	—	—	—	—	●→
감족같- 문헌 수록 표기	—	—	—	—	—	●→
감쪽같-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감쪽같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감쏙같-, 감족같-, 감쪽같-

감쪽같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감쪽같다’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감쪽같다’는 ‘감쪽’과 형용사 어간 ‘같-’이 결합한 것인데, ‘감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같은 시기에 ‘감족같-’과 ‘감쏙같-’도 나타나는데, ‘감족같-’은 제2음절의 초성을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은 것이고, ‘감쏙같-’은 ‘ㅈ’의 된소리를 ‘ㅉ’으로 표기하는 옛 관습을 따른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감쪽같다’로 적게 되었다.

문헌 속의 감쪽같다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감쏙같-, 감족같-, 감쪽같-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감쏙같-, 감족같-, 감쪽같-

출처 1921 동아일보 12월 4일 5면

용례 01

문헌 용례

감쏙가튼 거짓말로 쌀 한 가마니를 편취.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2월 21일 2면

용례 02

문헌 용례

감족가튼 僞紙幣.

현대어 풀이

감쪽같은 위지폐.

출처 1934 조선일보 8월 28일 4면

용례 03

문헌 용례

침실은 전과 가치 감쏙가터진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동아일보 5월 8일 3면

용례 04

문헌 용례

뚜껑을 덮으니까 아주 감쪽같엇습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감쪽같다에 관한 주석

‘감쪽같다’에서 분석되는 ‘감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감쪽’을 ‘곶감의 쪽’으로 보는 것이다. 곶감이 맛이 있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빨리 먹다 보니 ‘감쪽같다’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곶감’을 ‘감(의) 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감쪽’이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뜨는 모양을 나타내는 부사 ‘깜짝’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있듯이 재빠른 동작을 표현할 때 ‘감쪽같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부사 ‘깜짝’과 형용사 ‘같다’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는 ‘감쪽’이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뭇가지에 접붙이는 일을 뜻하는 ‘감접’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고욤나무에 접을 붙이면 접을 붙인 흔적이 남지 않는데, 이로 인해 ‘감접같다’가 만들어진 후 ‘깜쪽같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준조선말사전≫(1947)에 ‘감접같다’가 ‘감쪽같다’의 비표준어로 실려 있고, ≪큰사전≫(1947)에는 ‘감접같다’가 ‘감쪽같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로 ‘감접같다’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감나무 가지를 다른 나뭇가지에 접붙이는 일을 뜻하는 ‘감접’은 제2음절이 [접]으로 발음되는데 ≪큰사전≫(1947)의 ‘감접같다’는 제2음절이 [쩝]으로 발음되어 다르므로 ‘감접’의 제2음절 초성이 ‘감접같다’에서 [쩝]으로 발음이 바뀌었다고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감쪽같다 관련 낱말

- 

감쪽같이부사남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꾸미거나 고친 흔적이 없이.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감쪽같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민수 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 조항범 2022 ≪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감쪽같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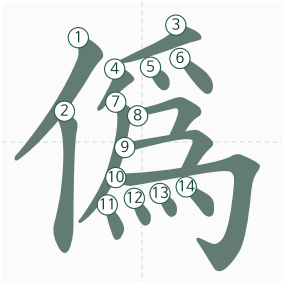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僞

뜻·음 거짓 위

총 14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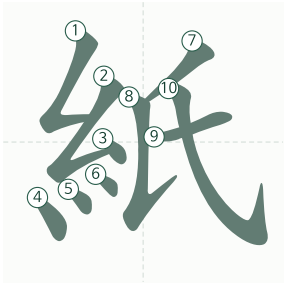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僞/

紙

뜻·음 종이 지

총 10획 · 부수 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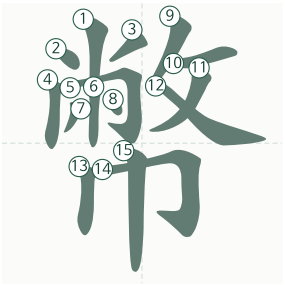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紙/

幣

뜻·음 화폐 폐

총 15획 · 부수 巾





hanja.wordrow.kr/한자/幣/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